



“잔혹범죄자에 재생기회 줘야”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사형제 폐지 촉구 공동성명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강우일 주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교무(교정원장)는 성명서를 통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법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이제 국가가 사형폐지를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치만 남았으며, 우리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교단 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형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회의 분류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에 됐다. 지난 2년간도 사형집행은 없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언 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했다.

이내나 기자

“종교지도자가 ‘우리’ 생각할 때”

KCRP, 만해마을서 종교간 대화... 미래 종교 역할 모색

“인간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의 순기능을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종교의 근본과는 다르게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건강에 이바지하려면 우리 종교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이하 KCRP)가 서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간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각 교단 교역자들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만해마을의 자유정신이 깃들여 있는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에서 ‘한국사회의 종교간 대화협력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는 “혼자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폴발레리(프랑스 시인)의 말을 빌리며 “한국사회 종교자유 문제와 종교평화의 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종교자유 실현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주최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만해마을에서 종교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대화캠프가 열렸다.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개인’을 버리고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종교지도자는 종교를 넘어선 영성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서강대 김희성 교수는 “한국사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종교적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내재적 초월을 강조하는 동양 종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

이고 기독교신학 역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며 미래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국사회 종교간 협력을 위한 2박3일 간의 여정은 각 종단의 교단운영과 미래비전 소개와 발표를 비롯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백담사(오세암), 수렴동 계곡 및 양양 낙산사를 거닐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주 기자

서울시 복지조례 교계 대응책 마련

조계종복지재단 ‘2009 불교 사회복지법인 간담회’서 조달현 서울시의원 주문

서울시의회에 상정중인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복지시설 다수의 운영주체가 일반 시민단체 등으로 변경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우)은 10월 27일 AW컨벤션센터에서 ‘2009 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30여 주요 불교계 복지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조달현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 조례가 국가 시행령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제도는 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응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 조례안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개정안 제11조 제2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



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불교계 복지법인 실무자들 모습. 원내는 조달현 서울시의원.

을 제한하는 방안(제12조 2항) △장기간 운영해온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해 신규단체와 동일한 조건하에 공모입찰 경쟁하는 방안(제22조 2항)이다.

복지계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3년 운영기간에서 2년을 운영하고 1년간 준비해 심사받았던 재위탁 심사일정과 비교해 개선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제12조, 제22조가 상정될 경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산하 복지법인시설을 이웃종교 또는 시민단체 등 민간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 돼 20년간 일궈온 불교복지계의 입지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복지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수탁 마지막 3회 차에 직원

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는다.

조계종 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은 “은평구 소년외집을 가톨릭에서 20~30년 운영해왔는데 제12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사 시설을 내놓게 된다. 불교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달현 의원은 “복지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시설이 종교행사를 하는 곳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생긴 것은 민간위탁이 모든 사회복지자

비스의 최선이 아닌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재위탁시 공개경쟁을 할 경우 △지속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매너리즘 차단 △부실한 법인 퇴출 △건설실 신규법인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국장은 “국내 복지시설 중 50%가 종교재단에서 운영되는 만큼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해당시설, 협회, 법인 등에 의견들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종교계 법인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 왜곡되게 인식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종교계시설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불교계복지시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전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 스님, 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연꽃마을, 인덕원, 승가원, 통도사지비원 등 30여 종단법인 실무책임자가 참여했다.

이내나 기자

초등 공부습관 특강

3~24일 증산정보도서관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 자녀들이 올바른 공부습관을 갖기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서울은평구립증산정보도서관(대표 성운)은 11월 3~24일 ‘한 번 익혀 평생 가는 초등 공부습관’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초등학생 때 꼭 잡아 줘야 할 3대 공부습관과 그 효용에 대한 강의를 위주로 진행된다.

김영사 무한지식총전소 손병목 소장이 강사로 나서 △부모 역할 훈련 시간 △예습복습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법 등을 가르친다. (02)307-6030

이내나 기자

맞춤노인전문요양시설서 쉬세요

10월 23일 진각복지센터 개관

진각종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이 10월 23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인 진각복지센터 개관식을 봉행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진각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429.25㎡의 규모로 건립됐다.

선진국형 맞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향하는 진각복지센터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재활치료, 다양한 사회참여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로 모집정원은 120명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혜정 정사는 “진각복지재단 설립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해 센터를 건립했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불교복지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는 일정 정사 등 원로스승들과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 정사, 사감원장 효운 정사, 서찬교 성북구



진각종 관계자들이 진각복지센터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청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후원, 문화복지재단 주최로 10월 24일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서 월곡동 지역문화축제 ‘월곡동 이야기’를 열었다. (02)942-0149

이내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www.beomeo.kr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梵魚寺

조실지유 주지정여

선원장인	각	박물관장	경	선	강	주	용	학
총무국장	도	관	교무국장	승	런	재무국장	정	현
사회국장	법	귀	포교국장	일	광	호법국장	돈	각
연수국장	도	명	원	주	정	오	도	감
			신도회장	이	윤	희		